



돼지 산지가격

성돈 1두에

63,000 원
으로 폭락

1983년 12월 15일 온양에서 개최된 본회 충남북 지부장회의에서 돼지산지 가격이 충남북지역에서 자돈가격은 1두당 5,000~7,000원, 생돈가격은 1kg당 700~800원으로 폭락되어 거래되고 있다고 밝혀졌는데 그나마 판로가 어렵다고 한다.

협회회원은 이 기회에 사육두수를 반으로 감축해야 살 수 있고, 모든감축은 가격문제로 곤란함이 밝혀졌는데 도축장 출하비율을 비육돈 10두당 어미돼지 2두 비율로 조정해야 되며 국립중축장의 종돈분양도 전면 금지해야 된다고 결의했다.

한편 198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돼지산지가격동향을 살펴보면 1월평균 kg당가격이 2,003원, 2월 1,898원, 3월 1,668원, 4월 1,556원, 5월 1,677원, 6월 1,504원, 7월 1,216원, 8월 1,155원, 9월 1,347원, 10월 1,171원으로 공식집계되었는데 12월 중순경 드디어 일부지방에서 세자

돼지파동이 거센파도를 치며 산지를 휩쓸고 있다.

리수까지 떨어지는 폭락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돈인들이 자신들의 현 사육두수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영원히 양돈산업대열에서 탈락되고 말 것이다.

양돈인들이 단결하여 상호 사육규모를 대폭 축소 조정하려는 의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자율적인 생산조절을 하지 않으면 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돼지가격의 폭락현상으로 인하여 양돈산업기반이 황폐화되고 말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건국 이래 사상초유의 돼지파동을 불러 일으켰던 '79년도의 산지가격동향을 살펴보면 1월에 kg당 1,182원, 3월 978원, 6월 856원, 9월 600원, 12월 406원이었으며 년평균 789원이었다.

1984년도에는 '79년도와 같은 "돼지나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생산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자율적생산조절운동을 펼쳐야 될 것이다.